

제 37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오정선미)가 주최하는 제 37 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영화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도시인 시애틀 DoubleTree by Hilton Seattle Airport 에서 7 월 18 일(목)- 20(토)까지 개최되었다.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지역의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학술대회라 볼 수 있다.

학술대회 사전 프로그램으로 열린 한국어 집중연수회는 NAKS와 국립국어원이 10 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어 교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국어원에서는 소강춘 국립국어원장님을 비롯하여 5 분의 강사들을 파견하여 깊이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금요일 개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되었는데 일선에서 한국어와 한글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오정선미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도 우리 아이들의 우리말 교육을 비롯한 역사, 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이형종 주 시애틀 총영사가 대독하였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축사는 행사에 참가한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대독하였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이선호 주재관이 대독했으며, 소강춘 국립국어원 원장,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 비록 신문규 주미대사관 교육관과 각 지역의 교육원장, 이재업 독도재단 이사장,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최보영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 내주었다. 또한 한범덕 청주시장의 축사는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온 목진희 학예연구사가 대독하였으며, 임영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김신일 전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ACTE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for Foreign Languages) President-elect Bridget Yaden 등 많은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을 하였다. 올해는 서북미 한국학교협의회 조영숙 회장 및 교사님들과 이현숙 준비위원장께서 수고를 해 주셨다.

기조강사인 폴 김은 교사가 학생들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을 하여 학생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백범일지 독후감 쓰기 대회 와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한국어 수업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한국문화 체험관이 진행 되었다. 한국 문화 체험관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애틀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학생들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리더십 캠프와 미국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청소년 정체성 함양 포럼 등도 이번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 함께 진행되었다. 약 700 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이 행사는 매우 알차고 의미있는 행사였다.

2020 년 제 38 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7 월 16 일에서 18 일까지
필라델피아(동중부협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NAKS 웹을 방문하시기 바란다.

<https://www.naks.org/jml/>



기조강연 폴 김 교수



19 대 총회장 오정선미 및 집행부 임원



집중연수 단체 사진,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님과 이승재 과장, 박미정, 김은호, 윤상석 교수



문재인 대통령 축하(이형중 시애틀 총영사 대독)



후원금 전달식

오정선미 NAKS 총회장, 이현숙 서북미지역 행사 준비위원장, 조영숙 서북미지역협회장



교육부 관계자와 간담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시험에서 만점자를 배출한 협의회 회장단



NAKS-ACTFL 한국어 교사 인증제 멘토님들, ACTFL 차기 회장인 브리짓 야덴과 함께



대한민국바로알리기 기사단, 전후석 변호사, 한연성부회장, 오정선미 총회장, 신문규 교육관



나의 꿈 말하기대회 수상자 전원: 대상 주미래 학생(워싱턴지역협의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건배사



2020년 제 3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필라델피아(동중부협의회)